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	배포일시	2019. 2. 8.(금) / 총 3매(본문 2)	
		담당자	• 과장 김규철, 사무관 김규한, 주무관 박정훈 • ☎ (044) 201-4951, 4730	
보도일시		2019년 2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정책위,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올해 첫 국토계획평가로 「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」 심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*를 새로 구성**하고,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(이하 '분과위')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'18.12.~'20.12., 국토·지역관련 계획 등을 심의·조정,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심의

**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27명중 23명을 신규 위촉('18.12.10.)

-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'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,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'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 「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」을 심의하였다.

-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'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,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

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'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,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.

○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,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.

○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*하고,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하여 승인('19.1월)된 바 있다.

* (평택시 목표인구) 120만 명→90만 명 (용인시 목표인구) 150만 명→128만 명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고령화, 인구감소,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며,

○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국토조사와 평가분석, 환류 등을 통해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규한 사무관(☎ 044-201-4951) 또는 박정훈 주무관
(☎ 044-201-47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전략적·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,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,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 하는 제도

□ 평가의 대상 및 시기

- (평가대상)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, 지침적 성격의 계획(28개)*을 대상으로 평가
 - * 도 종합계획,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 기본계획 등
- (평가지기) 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전 검증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

□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

- (평가기준)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의 반영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(4개)*

* 국토의 균형발전, 국토의 경쟁력 강화, 친환경적 국토관리, 계획의 적정성

- (평가절차)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 수립·변경시 평가요청서를 제출, 국토부 장관은 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상정·심의후 통보

* 평가절차 예시도(도시·군기본계획)

